

# 한국사

해설위원 : 조민주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권리는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문항 분석 >

유형	2019			
	정치111	경제31	사회	문화41
선사시대	1. 청동기 시대 2. 초기 국가			
고대	8. 발해 무왕	14. 중대의 경제		
중세	3. 인종	6. 시정전시과		12. 삼국유사
근세	18. 통치기구			5. 성종대의 편찬 16. 서원
근대태동기		10. 조선후기 경제		
근대	7. 근대의 사건 13. 동학농민운동 17. 근대 조약			
민족독립운동기	4. 3·1운동 이후 사건 9. 한국 독립군			19. 박은식
현대	20. 정부수립 과정			
통합				11. 단군에 대한 인식 15. 문화유산

## < 총 평 >

2019년 국가직 9급 한국사는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6번 시정전시과 문제나 11번 단군에 대한 인식 문제, 15번 문화 유산에 관한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었으나(난이도 중상)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합격컷은 95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가 13문제, 근현대사가 7문제 출제되었고,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0문제, 문화사가 6문제, 경제는 4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통합형 문제도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 < 향후 공부 방법 >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남은 지방직과 서울시에 빈틈없이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문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은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문제 분석] 청동기 시대의 이해 [난이도 하]

정답 ③

[문제 해설]

③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등이 있다. 강화도 부근리 유적은 16기의 북방식 고인돌이 분포해 있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다.

①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전기 유적이다. ② 창원 다호리는 철기 유적지로 오수전과 붓 등이 출토되었다. ④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움집터가 발견되었다.

## 문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문제 분석] 철기 시대 여러 나라 [난이도 하]

정답 ④

[문제 해설]

제시된 자료의 (가)는 부여, (나)는 동예이다.

④ 동예에서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① 고구려에서는 5부가 있었고, 태조왕 시기부터 계루부에서 왕위를 독점하였다. ② 삼한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는 대족장인 신지와 견지, 소족장인 부례와 읍차가 있었다. ③ 삼한은 제정분리사회로 제사장인 천군은 소도에서 농경과 의례를 담당하였는데,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 문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문제 분석] 고려 인종 [난이도 중]

정답 ③

[문제 해설]

고려 인종 때 금이 송을 치기 위해 고려에 사대관계(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자겸, 김부식 등은 경권을 유지하고 금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대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북진 정책이 좌절되었다.

③ 인종 때 묘청, 정지상 등의 서경파가 청제건원을 주장하고 금국 경벌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추진했으나, 김부식 등 개경파의 반대로 좌절되자 반란을 일으켰다(1135, 묘청의 난).

- ①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 ② 충렬왕 때 안향이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 ④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최우 집권기(고종)의 사실이다.

## 문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괘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 (중략) ...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문제 분석] 3·1 운동 이후의 상황 [난이도 중]

정답 ③

[문제 해설]

제시문의 ㉠은 1919년의 3·1 운동을 말한다.

③ 독립의군부는 의병장이었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 1912년에 조직하였다.

①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의 사실이다.

② 정우회 선언은 1926년 발표되어 신간회 창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 1922년 조선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되어 한국인의 재력과 노력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 문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문제 분석] 조선 성종 시기의 편찬 [난이도 중]

정답 ④

[문제 해설]

제시문의 ‘성상’은 조선 성종이다.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하여 반포되었다.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5례(길례 · 흉례 · 가례 · 빈례 · 군례)에 대한 기록으로 성종 때 신숙주 등의 완성하였다.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김충서 등이 간행한 것으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것이다.

②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저술한 책으로 천자문을 익힌 후에 배우는 초급 교제이다.

③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설소 등이 편찬한 윤리서로 삼강의 모범이 되는 충신 · 효자 · 열녀들의 행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였다.

## 문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문제 분석] 시정전시과의 이해 [난이도 중상]

정답 ①

[문제 해설]

제시문의 (가)는 고려 경종 1년(976)에 실시된 시정전시과이다.

① 시정전시과는 직산관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으로, 광종 때 제정한 4색 공복에 따라 관품과 인품을 반영하였다.

② 문종 때 개정된 경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지방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은 공양왕 때 실시된 과전법이다.

④ 태조 때 개국 공신들에게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경기에 한하여 지급한 토지는 역분전이다.

## 문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을사조약	13도	창의군	
발발강계	체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문제 분석] 근대의 사건 배열 [난이도 중]

정답 ①

[문제 해설]

을미사변은 1895년, 을사조약 체결은 1905년,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08년이다.

①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1898년의 일로, (가) 시기이다.

②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는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나) 이후 시기

③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1889년에 방곡령을 내렸다. - (가) 이전 시기

④ 보안회가 조직된 것은 1904년의 일이다. - (가) 시기

## 문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문제 분석] 발해 무왕 [난이도 하]

정답 ④

[문제 해설]

제시문의 (가)의 왕은 발해의 무왕이다.

④ 8세기 전반의 무왕은 당이 동북방 지역에 있던 흑수부 말갈족과 연합하여 발해를 위협하자, 수군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고,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① 1대 고왕(대조영) 시기의 일이다.

② 7대 경왕, 8대 회왕 무렵인 신라 혁명 때 급찬 승정이 발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812). 이는 원성왕 때 백여에 이어 2차 사신으로 파견된 것이다(790).

③ 3대 문왕 때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문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이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 [문제 분석] 한국독립군 [난이도 중]

정답 ③

## [문제 해설]

제시문은 사도하자 전투(1933)에서 한국독립군이 일본을 격퇴한 내용이다.

- ③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의 산하 부대로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①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다.  
 ② 미쓰야 협정은 1925년으로 한국독립군은 미쓰야 협정 이후에 활동하였다.  
 ④ 조선의용대(1938)에 대한 설명이다.

문 10. 밑줄 친 ㉠ ~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④ ㉣ - 발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였다.

## [문제 분석] 조선 후기의 경제 [난이도 중]

정답 ①

## [문제 해설]

- ① 조선 후기 정조때 신해통공(1791)을 반포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담배는 인삼과 함께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었다.  
 ③ 강필리의 『감저보』와 김장순의 『감저신보』등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고구마 재배법을 서술하고 있다.  
 ④ 발농사에서 밭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유행하였다.

문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 [문제 분석] 단군에 대한 인식 [난이도 중상]

정답 ③

## [문제 해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건국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민족 서사시이다.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를 단군 조선부터 서술하고 있다.  
 ② 『동국역대총목』은 숙종 때 홍만종이 단군에서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엮은 책이다.  
 ④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단기를 써서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하여 1919년을 조선 건국 4252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문제 분석] 삼국유사 [난이도 하]

정답 ②

## [문제 해설]

제시된 사료는 고려말 충렬왕 때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의 서문이다.

- ② 『삼국유사』는 불교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책이다.  
 ① 각훈의 『해동고승전』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정리한 최초의 편년체 사서인 『동국통감』(조선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④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 기전체로 서술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 [문제 분석] 전주화약 체결 이후의 사실 [난이도 중]

정답 ④

## [문제 해설]

제시문의 (가)는 1894년 5월 8일에 체결된 전주화약이다.

- ④ 1894년 10월 2차 봉기때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① 1차 봉기 시기인 1894년 4월 7일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물리쳤다.  
 ②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1894년 1월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③ 안핵사 이용태의 농민군 탄압으로 1894년 3월 1차 봉기가 일어났다.

문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9주 5소경대공의 난독서삼품과  
 확정설치발발설시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④ 청주(靑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 [문제 분석] 신라 중대의 경제 상황 [난이도 중]

정답 ①

## [문제 해설]

9주 5소경 설치하는 신문왕 때,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이다.

(가)는 신문왕에서 해공왕 시기로 신라 중대를 가리킨다.

- ①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한 것은 신라 중대 성덕왕 때이다.  
 ②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한 것은 지증왕 때이다.  
 ③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이다.  
 ④ 신라 하대 소성왕 때의 일이다.

문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 [문제 분석] 우리나라 문화유산 [난이도 중상]

정답 ③

## [문제 해설]

③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닌,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무왕의 왕후가 넣은 금제사리봉안기가 발견되었다.

- 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다.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으로 배흘림 기둥과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내부가 통층으로 되어 있는 다층 건물이다.

## 문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 (중략) ...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문제 분석] 서원 [난이도 하]

정답 ④

[문제 해설]

제시된 자료의 (가)는 서원이다.

④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학문 연구와 선현에 대한 제사의 기능을 하였다.

① 지방에 설치한 관학 기관은 향교이다.

② 서당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문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 (나)

- |             |           |
|-------------|-----------|
| ① 조·일무역규칙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② 조·일무역규칙   | 조·러수호통상조약 |
|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러수호통상조약 |

[문제 분석] 근대의 조약 [난이도 하]

정답 ①

[문제 해설]

(가)는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경, 1876. 7)으로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나)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4)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거중조정, 관세와 최해국 대우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문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1575년(40세)㉣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를 편찬하다.

- ①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문제 분석]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난이도 중]

정답 ②

[문제 해설]

제시문은 율곡 이이의 연보이다.

② 이조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을 합쳐 이조전랑이라고 한다. 이조전랑은 삼사 관원 선발권과 후임자 추천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봉당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① 왕명을 출납하면서 비서기관의 업무를 담당한 것은 승정원이었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였다.

③ 왕의 정책을 간쟁한 기관은 사간원이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한 것은 사헌부이다.

④ 왕실 서적의 출판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교서관이다. 홍문관은 국왕 자문과 왕명 대필, 경연 등을 담당하였다.

## 문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조선얼'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 ④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문제 분석] 박은식 [난이도 하]

정답 ②

[문제 해설]

제시문은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의 일부이다.

②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하면서 민족혼을 강조하였다.

① 열사상을 강조한 것은 정인보이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을 역임한 것은 김구이다.

④ 『독사신론』의 저자는 신채호이다.

## 문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나) → (라)
- ④ (다) → (나) → (가) → (라)

[문제 분석]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난이도 중]

정답 ②

[문제 해설]

(나)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1948년 8월 15일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어,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가) 이승만의 경음발언(1946. 6)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대두되자, 중도 세력인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 위원회가 조직되었고(1946. 7),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1946. 10).

(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여 1948년 4월에 김구와 김규식의 제안에 따라 김일성·김두봉을 중심으로 남북 협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이 개최되었다.